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②	2	①	3	①	4	①	5	③
6	③	7	⑤	8	①	9	④	10	④
11	⑤	12	④	13	⑤	14	⑤	15	③
16	②	17	②	18	①	19	④	20	②

1.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대화의 스승은 장자이다. 장자는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어떠한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 [출제의도] 에피쿠로스와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율은 밀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다른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며, 행복한 삶을 위해 공적인 활동을 회피하고 개인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밀은 쾌락을 추구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에피쿠로스와 밀은 공통적으로 쾌락은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플라톤과 모어의 이상 사회 비교하기

같은 플라톤, 율은 모어이다. 플라톤의 이상 사회는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철학자가 통치하며, 통치자와 방위자가 사유 재산을 갖지 않는 사회이다. 한편 모어의 이상 사회는 소유와 생산에 있어서 평등하고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여가 생활을 누리는 사회이다.

4. [출제의도] 지눌과 원효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지눌, 율은 원효이다. 지눌은 단박에 진리를 깨치는 돈오(頓悟) 후에도 습기(習氣)를 점차 소멸시켜 나가는 점수(漸修)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전 공부에만 의존하는 수행을 비판하였다. 원효는 모든 존재의 근거이자 인간의 본래 마음인 일심(一心)을 바탕으로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지눌과 원효는 공통적으로 각 종과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지는 도덕 법칙을 경험적인 세계 내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정제두, 이이, 이황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정제두, 율은 이이, 병은 이황이다. 정제두는 마음 밖에는 생리(生理)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이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모두 기가 발해서 이가 기를 타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이의 본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해서 기가 이를 따르는 것으로, 칠정은 기가 발해서 이가 기를 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쓰임의 차원에서 보면 이는 운동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흄과 듀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흄, 율은 듀이이다. 흄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공감하는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듀이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선형적 원리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흄과 듀이는 공통적으로 경험의 지식 탐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맹자, 율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사덕의 실마리인 선한 마음[四端]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므로 인위적인 노력(僞)으로 교화(敎化)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맹자와 달리, 하늘은 물리적 자연 현상이므로 인간에게 도덕성을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9.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소크라테스, 율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감각적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였으며, 악한 행동은 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의 실천과 관련하여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용이 모든 행위와 감정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적으로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선에 대한 앎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키르케고르, 율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앙으로 주체적인 참모습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는 공통적으로 개인은 상대화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라고 보았으며, 개인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하였다.

11. [출제의도] 롤스와 왈처의 정의관 비교하기

같은 롤스, 율은 왈처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리가 실현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 사회를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분배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영역마다 존재하는 고유한 정의의 원칙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롤스와 왈처는 공통적으로 소수가 모든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하이에크와 마르크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하이에크, 율은 마르크스이다. 하이에크는 사유 재산권과 자본주의를 옹호하였으며, 계획 경제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보았다. 반면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권을 비판하고 계획 경제를 긍정하였으며, 자본주의가 자체 모순으로 인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성을 천명지성(天命之性)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덕(四德)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실현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매킨타이어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매킨타이어이다. 매킨타이어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적 역할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은 공동체적 삶에서 비롯되므로,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도덕성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며, (나)의 퍼즐 속 가로 낱말 (A)는 '무애(無碍)'이며, (B)는 '당위(當爲)'이므로 세로 낱말 (A)는 '무위(無爲)'이다. 노자는 무위를 인간의 힘이 인위적으로 더해지지 않은 최상의 덕이라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스토아학파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토아학파의 주장이다. 스토아학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인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때 인간의 참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로크와 루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로크, 율은 루소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설립한다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구성하며 이러한 일반 의지의 행사가 주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은 주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적 추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의 은총 없이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며 신학이 철학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불교 사상은 연기(緣起)를 깨달아 자비를 실천하고 무아(無我)를 자각하여 탐욕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또한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에서 벗어나 중도(中道)를 깨닫고 수행하여 열반(涅槃)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20. [출제의도] 주자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주자, 율은 왕수인이다. 주자는 지행(知行)의 관계에서 지행병진(知行並進)을 주장하였으며, 개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격물(格物)이라고 보았다. 반면 왕수인은 지행의 관계에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으며, 개개 사물이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얻는 것이 격물이라고 보았다. 한편 주자와 왕수인은 공통적으로 지와 행의 일치가 도덕적 삶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